

광주 최대 상권 '충장로'... 매출액 1위는 '상무지구'

호남통계청 '지역 주요상권 분석'

충장로 사업체 수 3335개 '최대' 상무2, 평균 연매출 21억4천만원 '폐업' 충장로·첨단젊음의 거리 순

광주지역 전체 상권 가운데 동구 '충장로 상점가'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지만, 사업체당 평균 연매출은 서구 '상무지구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2015~2022년 광주지역 5개구 주요 상권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지역 주요 상권 사업체수는 총 2만 2658개로, 상권별로 보면 충장로 상점가(3335곳), 첨단 젊음의 거리(2291곳), 금남로 상점가(1416곳) 순으로 많았다.

같은 해 기준 폐업 사업체 수는 충장로 상점가(428곳), 첨단 젊음의 거리(421곳), 수완나들목(193곳) 순으로, 광주 최대 상권인 충장로의 폐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권 폐업률은 첨단패션의 거리(22.6%), 첨단 젊음의 거리(18.4%) 순으로 높았고, 2015년 대비 대인시장 일대(1.1%p), 첨단2지구(0.5%p), 남광주 시장 일대(0.2%p) 3개 상권은 폐업률이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상권별 사업체당 평균 연매출액은 상무지구2(21억4660만원), 상무지구1(13억7840만원), 금남로상점가(12억7080만원)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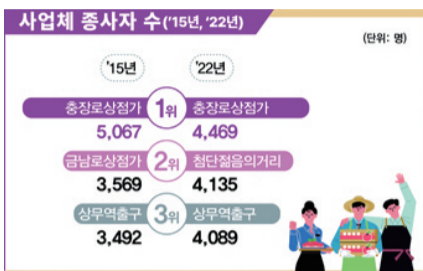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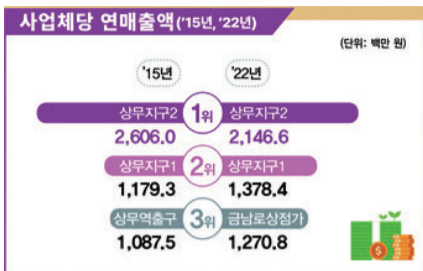
호남통계청은 상권별 평균 연매출액을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해 분석했다.

2015년 대비 사업체당 연매출액 증가율은 서구 양동시장 일대(7억2340만원→12억1580만원) 68.1%, 광산구 첨단패션의 거리(2억2340만원→3억5880만원) 60.6%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상무역 출구(10억8750만원→8억850만원) 일대는 감소율(-25.7%)이 가장 높았다.

또 2022년 기준 '상무지구2'를 제외한 주요 상권의 매출액 규모는 모두 '50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많았다.

상권별로 살펴보면 대인시장 일대



(62.2%), 상무지구1(53.3%), 충장로 상점가(52.7%) 순 등으로 높았고, '5억원 이상'은 상무역 출구(21.65%), 상무지구2(20.3%), 정부광주합동청사(18.1%) 순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대인시장 일대(59.4세), 양동시장 일대(59.0세) 순으로 높았고 수완나들목(45.8세), 동리단길(46.0세) 순 등으로 낮았다.

2022년 기준 주요 상권별 온라인 판매 대행 사업체 수 비중은 전남대학교 일대(27.6%), 동리단길(21.4%), 양산 먹자골목(21.0%) 순 등으로 높았다.

판매 대행 건수·금액은 충장로 상점가와 첨단 젊음의 거리가 1·2위를 차지했고 2019년 대비 정부광주합동청사를 제외한 주요 상권의 온라인 판매 대행 사업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광주지역 주요 상권 종사자 수는 3만5963명으로 2015년 대비 2만 8390명(26.7%) 증가했고 충장로 상점가(4469명), 첨단 젊음의 거리(4135명), 상무역 출구(4089명) 순 등으로 많았다.

광주지역 주요 상권 동향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이 '기업통계 등록부(2015~2022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권·전통시장별 유동 인구(2021~2022년)'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국내·외 경제, 소비문화, 인구가동 등으로 변화하는 광주지역 주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niiibo.com



동구, 맨발걷기 좋은길 개장

광주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 등이 7일 동구 산수2동 두암제2근린공원에서 열린 맨발걷기 좋은길 개장식을 갖고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5·18재단, 전 직원에 '압박성 운영방침' 하달

채은지 "직위해제 방침 등 문건 배포" 재단 측 "격양된 상태에서 작성" 사과

5·18기념재단이 전 직원에게 압박성 운영방침을 하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은지(사진) 광주시의원은 6일 5·18 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기념재단의 운영 방침 문건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 6월 정부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에서 '진상규명팀'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배치 및 업무 분담 문제를 문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 직원에게 배포됐다.

재단은 문건에 "직원들의 태도가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안이하며, 매우 이기적이고, 재단 설립 취지를 망각한 언행이며, 임금 인상·처우 개선 등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며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게 의심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부과되는 일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맡은 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사를 표하면 관계법에 따라 즉시 '즉위 해제', '보직 해임', '대기 명령', '직권 면직'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감정적인 표현과 압박성 방침이 포함된 문서를 전 직원에 배포한 것은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강배 상임이사는 "문건은 이사장과 함께 작성했고, 직원들의 태도가 아쉬운 마음에 방침을 세우고 배포했다"며 "다소 격양된 상태에서 작성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무안군

YOUNG DREAM

즐거움이 터진다

제4회 무안 YD 페스티벌

2024. 11. 15.금 - 11. 17.일

삼향읍 남악중앙공원